

### 때묻지 않은 순수함 그대로

김형돈 아프리카 풍물전  
29일부터 목포문화예회관



‘케나의 나이로비 노점상’

아프리카는 상상의 원천이다. 드넓은 초원과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느릿느릿 건너는 거북이와 사자. 가공되지 않은 낱것들의 세상. 아프리카는 이 때문에 화가 피카소와 마티스, 조각가 자코메티 등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

목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서양화가 김형돈 화백이 오는 29일~5월5일 목포문화예회관에서 ‘아프리카 풍물’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지난해 아프리카 케냐를 여행하면서 눈에 담은 그곳의 풍경과 원시 부족들의 삶을 화폭에 담아 선사한다.

마사이 부족 여인들의 일상, 몸바사에서 맞는 일출, 킬리만자로의 웅장함 등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화폭에 담겼다.

화면을 압도하는 화려한 색감은 원초적인 아프리카의 감성을 되살려내기 위해 충분하고, 섬세한 인물묘사는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느끼게 해준다.

또 순수한 감각적인 아프리카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자유롭게 들뜬 노니는 야생 동물은 아프리카의 때묻지 않은 생명력을 느끼게 해준다. 이밖에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고민수씨 부부의 일상은 담은 작품도 눈에 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전남도미술대전 등의 공모전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도 활동 중이다. 문의 061-270-848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 활동 시작한 靑문화중심도시 대학생 기자단

## “구석구석 숨겨진 문화소식 전해줄게요”

### 靑문화전당 홍보·지역 문화현장 기록 역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시아문화전당 등 관련 사업들은 시민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진다. 젊은층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제4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 기자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 기자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홍보하고 지역의 문화현장을 생생히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자로 활동하는 조대호(31·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대학원 1년), 박건우(27·전남대 임산공학과 4년)씨, 1·2기 학생기자를 거쳐갔던 나혜미(25·전남대 영문과 4년), 조은진(23·순천대 국어교육학과 4년)씨와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광주 문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지난해 지역의 다문화 관련 사업들에 대해 많은 취재를 했어요. 생각보다 말바닥에서는 다양한 관련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구요. 앞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기획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대학신문사 기자로도 활동중인 박건우씨는 “지난해 대학생 기자로 뛰면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도 버리게 됐고 모두가 함께 사는 삶에 대

한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해 자신 역시 ‘예술가’인 조대호씨는 예술현장을 접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전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직접 현장에서 뛰는 젊은 작가들의 시각도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건 같습니다. 대인시장이나 작은 대안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순종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광주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또 문화가 활성화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전통문화에 대한 발굴 등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전주 한옥마을 처럼 의미 있는 공간을 찾기도 어렵구요.”(혜미)

“문화는 결국 향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 체화돼 자연스럽게 구경하는 문화가 체질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갤러리나 공연장은 한번 더 걸음을 해야 가게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건우)

학생 기자들은 무엇보다 기자단으로 활동하며 ‘광주’와 광주의 문화를 다시 보게 된 점을 최대 수확으로 꼽았다. 솔직히 처음에는 ‘스펙’ 관리 차원에서 시작한 점도 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대학생 기자단이 옛 전남도청 앞 콘서트 홀에서 포즈를 취했다. 조대호·나혜미·조은진·박건우(사진 왼쪽부터)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만 배울 것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내가 사는 곳인데 광주에서 이처럼 큰 문화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기자가 되고 난후 문화전당을 비롯해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취재 기획안을 짜면서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친구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구요.”(혜미)

“전 전시·공연·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었지만 직접 취재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화가 일상화의 한 부분이고, 삶이고, 흔적이라

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기존의 문화보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과 갈증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화를 소개하고, 발굴하고 싶습니다.”(건우)

“아시아문화중심사업은 광주에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고급문화와 소수문화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해요. 정점에 있는 문화만이 아니라, 하위문화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숨겨져 있는 공간들, 숨어 있는 예술인들, 그리고 그걸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화가 일상의 한 부분이고, 삶이고, 흔적이라

4기 대학생기자단은 모두 30명이 활동하며 취재 내용은 ‘웹진 문화아시아’(http://www.cct.go.kr/webzine)와 추진단 공식 카페(http://cafe.daum.net/gjasia), 블로그(http://blog.naver.com/s6604)에 소개된다.

한편 대학생 기자단은 매월 취재제안을 받고 있다. 기자단에게 취재를 요청할 사안이 있으면 매월 10일 전까지 카페(http://cafe.daum.net/gjasia) ‘취재요청’ 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 운영위원 모집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茶樂)이 감상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다락’ 운영위원을 모집한다.

광주시 동구 학동 옛 김스쿨 지하에 65평 규모의 80석 규모로 문을 연 ‘다락’은 전 김스쿨 이사장 김명선씨가 오픈한 공간이다.

‘다락’에는 1억원에 달하는 매킨토시 XRT26 스피커와 B&O 파워앰프를 갖춘 음향시설을 마

련했고 대형 스크린으로 1080p 풀HD영상을 제공한다.

‘다락’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픈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밤 10시까지며 하루 2~3시간씩은 유명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 등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1주일 전 예약하면 원하는 음악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운영위원 모집 마감은 30일이다. 문의 062-226-01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국제 교류센터, 日지진피해 돕기 ‘오월음악회’

#### 내달 1일 문예회관에서

해마다 오월이면 음악회를 열어 그 수익금을 제3세계 국가에 후원해 온(사)광주국제교류센터(이사장 윤장현)가 올해도 뜻깊은 공연을 준비했다.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일본 지진피해복구 기금 마련을 위한 ‘오월음악회’를 오는 5월1일 오후 5시 광주문예

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Folk Song and Pop Songs’(세계 민속음악과 팝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플루티스트 최지혜, 소프라노 박계·김예령·박경숙, 바이올리니스트 양재미와 크로스 오버 피아니스트 윤경록, 피아니스트 박의혁·홍수정 등이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과 우리나라 민요를 공연한다.

또 중국 유학생 화려(조선대), 미국

출신 케일럽 세계레스, 캐나다 출신 안드레아 힐데브란드·트레버 호메니우크, 나이지리아 출신 울루페미 아델루이 등이 무대에 선다.

그밖에 소프라노 손아름·조슬혜를 비롯해 테너 황선숙, 광주영아방송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미정)이 출연한다.

티켓가격 1만원(회원 8000원). 문의 062-226-273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이주여성 이자스민 28일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강연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광주MBC와 광주교육대가 공동 주관하는 아시아문화 이해 공개 강좌 ‘아시아에서 길을 찾다’ 네 번째 강좌가 28일 오후 4시 광주교육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유재한 전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지는 이번 강좌에서는 이주여성 모임 ‘물방울나눔회’ 이자스민(34·사진) 사무총장이 ‘다문화가 힘이다’는 주제로 이야기한다. 강연에 앞서 광주여성필하모니와 광주다문화화



케스트라의 실내악 합동연주로 함께한다.

필리핀 이주여성인 이자스민은 2005년 ‘외국인주부가요열창’에 출연하면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다큐멘터리 번역가와 ‘다문화’ 관련 강연자로 강단에도 서고 있다. 문의 062-520-433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orea Be Inspired

대한민국 문화관광 우수축제

제81회

#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 함께해요 춘향사랑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향긋한 향연이 펼쳐집니다. 가슴뛰는 즐거움이 가득한 천년의 사랑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한다면 남원으로 오세요.

2011.5.6(금) ~ 5.10(화)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

춘향선발 | 춘향시대속으로 | 춘향제향 | 춘향국악대전 | 창극춘향전 | 방자놀이마당 | 대동길놀이

춘향제전위원회

Tel : 063) 620-4862~5 www.chunhyang.org

남원시 문화관광과

Tel : 063) 620-6165, 6163